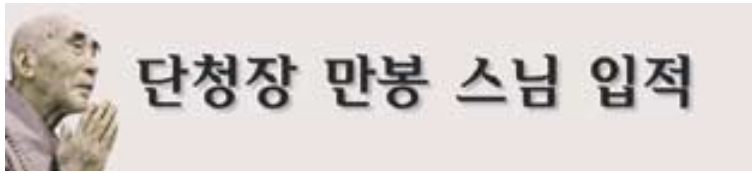


# 붓으로 불보살 세계 시현한 전통불화 ‘중흥조’



단청장 만봉 스님 입적

## 6세 때 입문...18세에 ‘금어’ 돼

### ▲행장

1910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님은 6세 때부터 김예운 스님 아래서 불화를 배운 뒤 26년 봉원사로 출가해 금어(金魚) 자작을 따냈다. 금어란 불화 그리기의 최고 경지에 이른 스님에게 주는 칭호다. 7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로 인정된 스님은 같은해 태고종 서울 종교원장에 이어 75년에는 태고종 봉원사 주지를 역임하기도 했다. 만봉 스님의 첫 전시는 1978년 제12회 세계불교도 우의회 동경총회장에서 기념

전 형태로 열렸다. 또한 같은해 명동유네스코 회관에서는 일본 전시 귀국작품전을 개최했다. 이후 81년 전통공예관(경복궁) 특별기획전에 이어 91년 일본 순회전, 97년 대구지역 순회전, 99년 부산지역 순회전, 2000년 분당전, 2002년 서울 관훈동 백악예원전, 2005년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관 기획전 등 다수의 전시회를 열었다. 이렇게 만봉 스님은 국내외에서 한국 불교 미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으며 그 공로로 1988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 <만봉 이치호 단청전 작품집>이 있다.



1999년 성북동 태고사 명부전 시왕상에 점안을 하고 있는 만봉 스님.

사진제공=석선암 스님

### ▲빈소 모습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에 마련된 만봉 스님의 빈소에 첫 조문객인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조문하고 있다.

### 운산 총무원장 첫 조문

5월 17일 새벽 0시10분 입적한 만봉 스님의 빈소가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에 마련됐다. 첫 조문객인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장 인공 스님, 봉원사 주지 환우 스님 등 종단 부장급 이상 스님들을 시작으로 조문객이 이어졌다. 운산 총무원장 스님은 “만봉 큰 스님은 종단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단청 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하신 어른”이라며 “만봉 스님이 태고종단내 끼치신 영향력을 고려해 삼천불전 이상을 지낸 스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종단장 형식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틀남은 유충준 문화재청장이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유 청장은 “만봉 스님을 생전에 빈적은 없었지만 인간문화재로서 한국불교미술 발전에 크나큰 공적을 남기신 분이라는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을 비롯해 종단협의회 소속 각 종단의 수장들과 정·재계, 학자 등을 김용욱씨 등이 잇달아 빈소를 찾았다.

### ▲단청장과 불화장 분리

만봉 스님은 1972년에 제정된 중요무형문화재 제 48호 단청장이었다. 단청장은 목조건물에 채색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 장인을 말한다. 현재 단청장으로는 만봉 스님의 입적에 따라 홍점석씨가 있다.

원래는 불화가 석경 스님도 단청장이었지만 문화재청이 지난해 11월 4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 심의를 거쳐 ‘불화장(佛畵匠)’을 중요무형문화재 제 118호로 별도로 지정함에 따라 단청장과 불화장이 분리됐다.

그동안 단청장(靑靑匠, 1972년 지정) 보유자에 의해 전승돼온 불화제작 기능을 단일종목으로 분리, 불화장(佛畵匠)으로 지정할 것이다. 김주일기자

## 생동감 넘치는 섬세한 묘사 압권

### ▲삶과 작품세계

만봉 스님은 6세 때 불가에 들어가 김예운 스님에게서 불교 미술을 배우기 시작한 이래 입적에 드는 순간까지 90여년 동안 한 시도 붓을 놓지 않았다. 영원한 ‘현역’이었다. 특히 지난 4월말에는 서울 신촌 봉원사 대웅전과 삼천불전의 단청과 개금불사를 완성하는 노익장을 과시하기도 했다.

만봉 스님의 평생의 화두였던 불화 그리기는 9,000여점의 흑흑한 그림 수업을 거쳐 18세 때 입적한 ‘금어’ 칭호를 받으면서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만봉 스님은 금어가 된 이후 화구를 꾸려 금강산, 묘향산, 지리산 등 명산대찰을 누비면서 단청불사에 매진했다. 수많은 만봉 스님의 단청과 불화에 섬세함과 생동감이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것은 스님의 작업 과정에 있었다고 불교미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스님은 단청 가칠, 팔레, 바름질 등 10여개 이상의 단청 과정 하나 하나를 거칠 때마다 강한 집중력으로 혼신의 힘을 다했다.

스님은 평소 제자들에게 “단청과 불화는 여러 과정을 이룬다.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가지씩 손끝으로 익혀야 좋은 그림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만봉 스님은 90세가 넘는 고령에도 은증일 행화작업에 몰두한 이 시대 불교미술의 장인이요 거장이었

### 내리 두시간 쉬없이 몰입 최근까지도 손떨림없이 작업 남북한 수많은 사찰에 단청

다. 최근까지도 행화 작업을 할때만 손떨림 하나 없이 작업에 몰두했다. 옆에서 보고 있노라면 숨을 고르면서 보여주는 스님의 붓놀림이 섬세하면서도 예사롭지 않았다고 제자들은 회고한다.

스님은 한번 작업을 시작하면 내리 두시간은 ‘초인적’으로 몰두했다. 간혹 제자들의 질문이 날아들면 하던 작업을 멈추고 몸소 시연까지 보여주며 직접 지도 해줬다. 꼼꼼하게 제자들의 미진한 점들을 지적하는 스님은 자못 엄했다.

입적에 들때까지 스님을 곁에서 시봉한 인접 스님은 “만봉 스님은, 부처님 그러는 일은 여러 장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천 장씩 그려야 된다”며 “수행이라 생각 하고 매진할 것을 항상 강조했다”고 회고한다.

이런 수행 원력과 열정으로 가득한 스님의 붓끝을 거쳐 이 지방세계에 탄생된 불보살은 수없이 많다. 70여년동안 남북한 사찰에 두루 걸쳐 ‘전설’처럼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에 북한 금강산의 표훈사와 유점사, 장안사, 마연사의 단청을 도맡았고, 서울 도선사, 안동 봉정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



만봉 스님이 4월 21일 자신이 사주해 개금한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 주불인 비로자나불을 감상하고 있다. 왼쪽은 영산재기능보유자 구해 스님.



만봉 스님(사진 왼쪽)이 31세때인 1941년 금강산 유점사 단청 작업을 마친 뒤 금강산 계곡에서 도반스님과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

암사 등 주요 사찰과 경북경주 불국사를 비롯해 종로 보신각·송례문(남대문)·남한산성 등 문화재 단청도 그쳤다.

임영주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은 “평생 전통불화와 행화제작에 온 힘을 기울인 만봉 스님의 작품을 마주 대하고 있으면 화려함과 섬세함, 역동감 등의 기묘적 차원을 뛰어넘어 붓끝에서 솟아난 강한 필력이 느껴져 전율을 느낀다”며 “그래서 스님의 불화속에 팔만사천법문이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극찬했다.

## “자상하고 공심 많았던 어른”

작업 들어가면 눈빛 달라지고 작은 실수도 엄격히 꾸짖어

### ▲주변에서 본 스님은...

만봉 스님을 오래전부터 시봉해온 태고종단의 스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만봉 스님은 자상했고, 무슨일이든 공심으로 임했다고 입을 모은다.

40년 이상을 곁에서 모셔온 前 봉원사 주지 인공 스님(태고종 종회의장)은 “만봉 스님은 자신이 사소한 단청 기법을 언제나 대중과 불사를 위해 쓰신 공심이 많은 분이셨다”며 “봉원사 재정상태가 안좋아 대웅전과 삼천불전을 짓고도 단청 불사를 하지 못해 전전공금할때 만봉

스님께서는 당신의 개인돈 1억원을 들여 불사를 해주셨다”고 회고했다.

만봉 스님을 입적하기전 마지막으로 친견한 봉원사 주지 환우 스님은 “지난 달에 만봉 스님의 후원으로 삼천불전 개금불사를 마쳐 5월 16일 오후 만봉 스님께 결산 보고를 드리러 갔었다”며 “스님께서는 알아서 잘했음인데 번거롭게 뭐 하러 왔느냐며 불화를 그리고 계셨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제자인 김미혜 단청장 이수자는 “만봉 스님은 평소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 자상하고 따뜻한 할아버지 같지만 일단 작업에 들어가면 눈빛이 달라지고 작은 실수에도 엄하게 꾸짖곤 하셨다”며 “작업할 때에는 항상 꼼꼼히 우직한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 ▲제자들 누가 있나?

예은 스님으로부터 단청을 사소한 만봉 스님이 그동안 배출한 제자는 수백 명이 넘는다.

그 중에서도 1986년 전승공예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87년 단청장 보유자 후보(1995년 이후 전승교육조교로 통일)로 지정된 박정자씨를 비롯해 전승교육조교

인접 스님·양선희씨, 전승교육조교이면서 제자들의 모인 벽면회를 끌고 있는 홍창원(벽면회 이사장)씨 등이 있다.

그 밑으로 이수자는 12명이 있는데 김창순, 이정아, 이세환, 김영범, 배정숙, 김정순, 원미희, 최문정, 박애숙, 권선아, 나혜안, 김미혜 씨 등이다. 이수자 아래에는 전승학생 이영기, 박귀영, 양정민씨 등 3명이 있다.

## 개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병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 참선공지도자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입상최면사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병의 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 神 입상최면사



現근 신선암 주지 現神 입상최면 협회장 現참 선공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 神 치유명상가

#### ◆참선공의식 사례

-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서 한의원 병원, 기공, 국, 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 ② 60세 중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 현재는 건강하게 모교 활동을 하신다.
-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월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걸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을 없이 잘 걸어갔다.
- ④ 고등학교 2학년때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생화 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 ⑤ 50세 중년 스님은 영가가 병의 되어 눈에 백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 특별전수과정

● 전수일 : 2006. 5. 26 (금요일) 14:00 - 18:00 (7회 과정) (선착순 10명 제한)

전 수 비 200만원

####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 조상 영가 보는 비법

조상 천도 비법	병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 ◆ 교육후 참선공 자격증 神입상최면 자격증 神치유명상가 자격증 발급.
- ◆ 지도자과정 전수 후 사회활동 하실 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 후원 합니다.
-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 근 신선암 참선공협회 ·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